

케네스 매튜스 박사 6과 창세기 6과 하나님의 아들들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6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창세기 5:1-6:8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셋 족속의 계보에 관한 것이며, 다섯 번째 부분에서 보았듯이 죄의 수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죄의 궤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의 통혼으로 끝날 것입니다. 6, 1에서 8까지는 9절에서 시작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족보 사이의 서술적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 현대 독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족보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족보가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와 족보와 이야기가 함께 작용하는 방식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이 읽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5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감독하시는지, 더 나은 용어로, 인류 가족을 위해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되는 역사를 감독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5장 32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을 펴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셈족의 족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5장과 11장을 마음 속에 함께 생각해 볼 때, 우주 가족, 인간 가족, 그리고 특정한 특정 가족이라는 더 큰 틀 사이의 연결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 족보는 또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즉 5장에서는 셋 족속과 함께 인류 가족의 연합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전인 4장에서는 가인 족속을 묘사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경우의 족보는 그 문체에 관한 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족보이며, 그것은 선형 족보입니다. 선형 족보는 가족, 즉 아버지로부터 한 명의 후손을 지명하며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모든 자손의 이름이 지정되는 세그먼트라고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족장, 가장의 계보적 유산이 뺏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셈, 함, 야벳의 자손을 명명하는 10장의 분할된 족보의 좋은 예에 관해서는 그 족보가 분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5장에서 32절에서 간단하게 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노아의 아들은 한 명만이 아니라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기가 있어 대조 또는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재검토하고 싶은 몇 가지 문제는 가인의 족보를 살해한 라멕과 에녹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조입니다.

에녹의 이름은 18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그의 아버지 야벳은 162세를 살고 에녹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벳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습니다. 야벳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명명된 모든 자손에게서 보는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우리는 패턴이 패턴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가 므두셀라를 낳은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이 내장된 이야기를 통해 셋 족속의 족보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에녹에게 사용된 언어는 창세기 후반부에 사용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과 은총을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딸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365년은 365일, 완전한 1년, 365년, 완전한 삶을 암시하는 숫자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365년이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반복하는 그런 종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 경건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확실히 에녹에 대한 높은 칭찬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각 사람의 맥락에서조차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한 삶, 즉 하나님의 면전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영웅적인 구원자로 정점을 이룬 셋 족속의 후손에 대한 매우 밝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제 28절과 2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또 다른 은혜의 행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8절에서 라멕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라멕은 182세를 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 발음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라는 단어에 대해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에 대해 노아와 히브리어 사이에 소리 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단어를 조금 가지고 놀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라는 단어로 위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고 그는 우리를 노아로 지을 것입니다.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셨느니라.

이것은 아담과 땅에 대한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자녀를 낳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글썄요, 라멕은 그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새로운 아담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인간 사회의 심각한 타락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이며, 노아가 만든 떠다니는 방주나 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가족, 새로운 출발을 통해 인도할 분입니다. .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면 셋 족속을 통한 노아의 조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대조적이다.

글썄, 일반적인 질문은 긴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것을 위해. 따라서 이러한 긴 수명을 숫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해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숫자는 비유적인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들 각각의 조상 혈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182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수명이예요.

물론 꽤 길고 아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노아까지 이어지는 라멕의 후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름이 지정된 각각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아닌 긴 통치를 가리키는 일부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왕족의 인물과 그들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수메르 왕 목록입니다. 수메르는 기원전 3000년부터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계곡에 살았던 종족이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역사와 이에 상응하는 아카드의 역사를 요약한 서면 왕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북쪽은 아카드, 남쪽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계곡에서.

그리고 그것은 홍수 때부터이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왕의 홍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왕.

기원전 1800년경에 통치한 함무라비. 그래서 우리는 홍수를 겪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과 그들의 왕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기록이 홍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전에 홍수에 대한 이차적 추가로 나열된 것. 그러나 이 왕들의 폭을 보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창세기 5장의 숫자가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메르 왕 목록에서 정말 오랜 통치 기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은 72,000년입니다. 글쎄, 내 생각에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한때 족장들이 더 긴 수명을 가졌고 타락 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로 인해 수명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악화되는 세상의 압력. 그래서 우리는 므두셀라의 장수인 969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44년. 그래서 우리는 감소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요셉은 110년,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것으로 이상적인 수명이 70세나 80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대략 70~80년의 삶을 포함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감소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내가 말했듯이 인간 상태와 자연의 부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숫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고대 세계에는 인류의 장수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설정하면 성경 밖에서도 이러한 장수에 대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도 신학적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 수명의 단축은 최악된 상태와 그것이 인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죄로 인한 자연의 부패를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5장 1절과 같은 표제입니다. 따라서 4장과 5장의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두 대조되는 내용과 병행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족보.

그리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 가나안 족속, 그리고 셋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로서 통혼의 결과와 그 시대의 전례 없는 폭력과 사악함에 대한 설명을 연결하고 설명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 11절을 보면, 이제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셨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따라서 이것은 인간 가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응답으로 응답하셔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보존하시나니 이는 그 세대와는 대조적으로 에녹의 대열을 따른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노아에게서 보셨음이라 그는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에녹 때문에 주님께 승천하셨느니라 그 자신의 셋 족속의 맥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1-4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5-8절의 두 번째 문단과 일치하는 첫 번째 문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단은 동시에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고 읽습니다. 아니 오히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습니다. 5절에서 주님이 보신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약간의 연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장성하기 시작할 때, 이 둘 사이에 통혼이 있는 후에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생명의 발전에 대한 그의 견해와 평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의 다리에 6장 1절에서 증가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의 폭발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최악의 폭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인간의 사악함을 강조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의 최악이 세상에 가득함

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오직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볼 때, 구약 전체는 아니더라도 창세기에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물론 대중문화계에서도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나는 이것을 일반적인 인류, 인류가 증가하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 세션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십시오. 4장 26절에서 사람들이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제가 말했듯이 4장 26절의 경우 새로운 방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벨을 대신한 셋의 탄생을 묘사하는 25절과 26절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셋 족속의 의로운 족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셋의 탄생과 그가 그의 혈통을 통해 아담 가족에게 가져올 의로움과 함께, 셋의 혈통을 통해 인간 가족이 특이한 방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구하는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셋 족속 공동체를 노아와 결국 아브라함을 일으키실 대상으로 선택하셨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 방향이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5장에 나오는 의로움에서 벗어나면 여기에 새로운 방향, 즉 출산과 출산의 증가가 있는 새로운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설명된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사악함의 새로운 방향, 곧 셋 족속의 의로움에서 돌아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통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독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글썄,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에 관해서는 경계가 넘어졌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라면 경계의 중요성과 경계를 넘는 것이 경계가 분리한 것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지를 잘 인식했을 것이다. 다양한 종족 그룹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살펴볼 때,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에 거주했던 다양한 종족 그룹인 이웃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웃과 분리하는 것이 강조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나안 주변의 큰 나라들은 불법적인 형태의 예배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다신교와 함께 우상 숭배이며 성적 일탈의 다산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혼에 대한 경고와 금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내들은 그들의 신들을 가져오고, 새 아내들은 그들의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영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읽는다면 매우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2절에 묘사된 대로 사람의 딸인 딸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딸들은 분명히 인간의 딸을 능가하는 자손을 낳는 데

중요해질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

이제 우리는 문제가 있는 표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아름답다로 번역된 언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을 빠르게 언급했습니다.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말은 창세기 1장의 많은 기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죄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아니었고, 죄와 사악함, 살인과 폭력으로 얼룩진 결함 있는 세상의 창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느님께 반역한 결과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결혼했다는 단어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번역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이지만 아내를 취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관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결혼했다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강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어난 일이 강간, 강요, 성적 관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글썄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여기의 표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사들에게 사용된 그 표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욕기 1장 2절, 아니 오히려 1장과 2장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오는 천사들의 군대와 그 대변인은 대적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심지어는 악마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매우 강력하고 오래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적절한 거주 영역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것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사람의 딸들의 유혹이 될 것임을 알았고, 그들의 성적 강박관념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빼앗아 자신들의 성욕을 위해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악마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거의 모든 단어를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정원이 생각나는군요. 그것은 이브가 선택하여 먹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이 열매에서 본 것과 그것이 얼마나 보기에 아주 탐스러웠는지, 어떻게 먹기에 좋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나게 합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동산의 죄, 동산의 멸망에 대한 메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것은 천사나 악마에 대한 논쟁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초대교회 초기에 매우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기독교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것이 매우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 관점, 즉 천사 관점만큼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해석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해석자로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참되고 모든 면에서 신뢰할 만하지만 해석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다는 점은 어렵고 이 경우에는 모호한 구절에 대해 너무 단정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로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개념에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이 복수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문맥상 분명히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설명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신일 수도 있고 복수의 신일 수도 있는 것처럼, 신적 존재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아들들은 경건한 혈통을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내러티브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의지하는 해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이 될 것이며, 4장과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확립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손은 셋 족속의 자손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인 족속의 후손일 수도 있고 셋 족속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들이 셋 족속의 결혼에 있어서 차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적인 혈통을 지닌 신적인 가족의 경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 족속과 가인 족속이 관련된 통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허무신 결과,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죄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번역된 말로는 육신이요, 죽을 몸임이니라.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은 들이쉬는 것을 반영하는 영, 즉 2장 7절에 나오는 첫 사람의 콧구멍에 하나님이 들이쉬신 생명력인 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번역에는 대문자 s(나의 영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1장 2절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장 2절에서 혼돈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소문자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나의 생명을 주는 호흡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인류에게 영원히 유익을 주기 위해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근친결혼으로 창조된 새로운 혈통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죽음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자손이신 그분이 필멸의 존재임을 설명하러 나가십니다. 이제 이 육체라는 단어는 부도덕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인간 생명의 취약성 및 연약함, 즉 필멸의 존재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생명을 주는 호흡, 즉 2장 7절의 첫 사람의 창조에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120년은 12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120년은 수명을 의미하는가? 인간 수명의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120년 동안 기회가 있거나 지연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홍수가 오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양하게 이해됩니다. 내 경우에는 대략 120년 정도의 수명을 생각하는 편이다.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모세가 120년을 살았고 이상적인 수명을 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이것이 매우 문제가 됩니다. 네피림으로 번역된 단어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전은 히브리어를 음역합니다.

지금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인 영어 문자와 영어 발음으로 단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역입니다.

복수형인 네피림. 그러므로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서 자녀를 낳았더라.

바로 거기에서 잠시 멈추자. 네피림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에는 네피림을 거인과 유난히 강하고 우뚝 솟은 무리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4절과 여기 네피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몇 가지 문제. 그리고 하나는 네피림이 홍수로 멸절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말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와 그 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시대의 네피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땅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동시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네피림이 어떻게 언급되니까? 글썄, 내 생각에 이것은 네피림을 고대, 최초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 유산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비유적 표현으로 참조할 수 있는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피림이 이 시대의 사악한 후손으로 여겨졌을 때 땅에서.

그 당시에 그들은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또한 있었습니다. 즉, 발생한 폭력, 악랄함의 아이콘이다. 그것은 스타워즈의 이야기나 이야기에서 사악함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다스 베이더를 생각나게 합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피림을 볼 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요새, 모세가 광야로 보낸 정탐꾼들을 볼 때 그들은 그 언어를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압도당하였도다." 우리는 성벽과 진보된 문화, 전쟁을 갖춘 이 도시들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스 베이더와 같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입니다. 이제 그들은 유명한 노인들의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람은 말 그대로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전사, 고대의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5절에서 이어지는 악행에 대하여 이어지는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네피림은 거인종족이 아니라 명성이 있는 전사들의 집단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래에 통혼을 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은 고대의 영웅들, 명망 높은 사람들, 명망 높은 사람들. 반드시 거대한 인종을 창조하는 이러한 근친 결혼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서 5절의 세계를 창조한 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고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 그들의 내면 생활.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 매우 의인화된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후손이 그러한 악을 행할 경우 그들의 사악함과 수치심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슬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선을 위해 인류를 창조하신 주님.

그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거룩하고 선한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한탄하며, 내가 창조한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셨다. 그리고 동물계를 감독하는 남자와 여자는 전체 창조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물계의 연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생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이는 사람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니라 그들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함이라. 이제 이어지는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창조의 역전이다.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여기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렇게 심판을 내려 인간 가족과 그 모든 악을 일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1장 2절에 나오는, 생산적이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은 어둠과 바닷물과 깊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와 함께 바다와 바다를 만들어 생산적인 세상과 사람이 사는 세상을 비생산적인 세상, 노아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은 구원자로서 따를 노아와 그의 세대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에 대한 기술적인 언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당신의 해석이 6장에서 천사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천사를 거스르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행과 심판에 사용되는 용어는 모두 사람, 즉 인류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남자는 남자 아들이 있고 여자 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심은 인간에 관한 것이지 천사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더욱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뱀을 사탄으로 해석하면

그곳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뱀은 그런 식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천사. 해석가들이 뱀의 행동과 행위가 나중에 밝혀진 사탄의 행위와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인류의 타락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악함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시며 그것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이 어떻게 남은 자들, 즉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존을 확립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보게 되겠지만, 6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은 9장에 언급된 구체적인 언약이 있는 홍수 후 9장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션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6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창세기 5:1-6:8입니다.